

큰스님 수행한담

고통과 번뇌의 삶 연속



1985년 서울 휘경학원 제육관 기공식에서 승산스님(앞줄 왼쪽), 외국인스님들과 함께 한 벽암스님(앞줄 오른쪽).

개고 그 불성(佛性)에 합하여질 때 기운이 옮겨 만들어지며 바로 이를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져 너 나없이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된 것 모두 우리나라 정계 재계지도자는 물론이고 국민 스스로 이렇게 오도록 행동했던 인과입니다. 공의 씨앗을 뿌렸기에 공의 싹이 돋았다라는 말이요. 분수는 생각 않고 사치와 허영에 날뛰었던 거지요. 지금이라도 또 그렇게 행동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는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진리에 희망의 마음을 싣게 되면 이 경제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평정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건 강해지거든요. 그것은 비로소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아 극복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기에 우

“생명은 시공을 초월하는데 60평생 70평생 하며 사니 신·구·의 삼업 지어요”

각하면 하루도 속 편할 날이 없어요. 나도 천성이 지는 것 싫어하고 성질이 급해요. 그러다보니 어려서부터 매사에 내 주관대로 끝장을 내야겠다고 해서 싸움도 잦았던 상투이예요. 몸집은 이렇게 작아도 보통학교시절부터 유도부에 들어갔고, 친구들과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먼저 때렸어요. 급한 성미에 이기고 싶었으니까. 늘상 급장했어도 싸움에 빠지지 않았지요.

어렸던 인연이 묘하고 엄격해요. 내 속가 고향은 기독교 천도교가 성했던 남해이고 집안은 유교집안이라 불교 믿을 생각도 할 수 없던 환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출가하려고 한암스님을 찾아 뵈고자 강원도로 가는데 누가 그래요, “서울 역경원으로 가라”고. 거기에 우리나라 일류 학승이 다 모여 있다고. 그걸로 역경원으로 갔습니다. 당시 원장이셨던 은사 스님(적음스님)을 친견했고 스님이 상좌로 거취하신 것이지요. 우리 스님은 대방한 분이십니다. 회로에 락을 얼굴에 안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반갑게 해도 얼굴만으로

정화불사에 열중할 수 있는 기분이 됐던 겁니다. 사실 나도 큰스님을 닮아보려고 해도 잘 안돼요. 그러나 큰스님 덕분에 급한 성미는 많이 고쳐졌습니다. 지도자는 코끼리나 황소처럼 용성으로 행동하며 그 반경만큼이나 포용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종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달라는 요청으로 참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짓거리라. 한암스님처럼 기만하 있어야 했거든요. 중보술에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건데.

그런데 요즘 보면 너도나도 큰스님입니다. 심지어 대조사라는 호칭도 쓰더라고요. 과거 대조사사가 그런 식으로 교화하셨거나 호칭되지 않았어요. 아랫사람 또는 신도들에게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과공(寡供)은 비례(非禮)”라 했습니다. 어른을 아무리 존경해도 어울리게 안 뒤가 맞도록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조각이 있어서서 더더욱 안돼요. 수덕사 고봉스님이나 한암스님은 절대로 조실소리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감화보다는 무언의 감화가 더 크다는 것을 일깨우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포교도 말만은 것보다는 말없이 믿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처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가르침이고 전법이고 포교였으니까요. 옛 스님들은 이렇게 포교하셨습니다. 한암스님이 오대산에 계실 때 40여년간 밖에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수행하시면서 품었던 뜻은 내가 자취를 감추어 천년의 학이 될지언정 백년동안 포교로이 말하는 피교리를 배우지 않겠다는 말씀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나라 일도 그렇고 종단 일이나 개인사도 주위와 이념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제대로 좋게 되기 위해서는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대의와 명분으로 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어디 그래요?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무엇을 위해 중저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무엇이 어떻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과거 큰스님들이 인다물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저 너는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나의 경전



부증불감경



김주곤 경신대 교수·국문학

어느날 ‘문학과 종교’ 강의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진여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자네는 진심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그가 지니고 있는 불교지식을 동원해 대답했다. 대답을 들으면서 그 학생은 유일무이의 일깨움을 유지 못하는 까닭에 사건의 마음을 일으켜 더(增)와 덜(減)의 견해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학생의 그곳된 견해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견해를 제시해주지 못했다. 여러날을 어떻게 하면 번뇌에 얽혀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경전을 살피기 시작했다. 혹시 학생에게 해줄만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정신수대장경 16권에 수록돼 있는 <불설부증불감경>을 만나게 되었다. 읽고 또 읽을수록 심오한 뜻에 매혹되어 자비는 관음요,

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견을 품게 되는데 <부증불감경>은 그 이유를 불묘의경(不了義經)에 의지하고, 공의 견해를 멀리하며, 초발심을 알지 못하고, 무량한 법을 알지 못하며, 여래의 무량한 힘과 경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1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13가지의 이유는 초발심에 서부터 대열반에 이르는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중생들이 여래의 특

질을 알지 못하여 이러한 사건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증불감경>에서 말하는 중생계는 일체 중생을 의미함과 함께 그 일체 중생에 있어서의 공종의 본질인 본성이 여래장이며, 여래장은 법신이다. 이 법신이 향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무변한 번뇌에 얽혀서 비롯함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지금의 세간에 순수(順守)하여

여래와 중생계 증감없는 한세계 초발심서 대열반 이르는 순서 밝혀

남과 나를 따짐은 수미산이요, 사된 마음은 바다물(苦海)이며, 번뇌는 물결이요, 탐심과 성내는 마음은 지옥임을 알게 해 주었다.

<부증불감경>은 산스크리트본이나 티베트본은 존재하지 않으나 <구경일승보살론>의 산스크리트본에 일부가 인용돼 있으며 한역만이 존재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래와 중생계는 일체(一界)여서 증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법부는 여래와 중생계가 일체임을 알지 못하고, 일체계를 보지 못하는 까닭에 사견을 일으켜 증감의 견해를 가진다는 것이다.

증견(增見)이란 열반이 비로소 생긴다는 견해다. 열반이 본래는 없었다가 지금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연도 없이 출현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연기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감견(減見)에는 단견(斷見) 멸견(滅見) 무열반(無涅槃)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단견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견해이며, 멸견은 열반을 가리키고, 무열반은 열반이 없다는 견해 즉 열반을 공적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소극적인 열반관이다.

파도에 표류하면서 나고 죽음을 왕래함을 이르는 중생이라 한다. 이와같이 중생은 법신이 번뇌에 얽혀있으나 법신은 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는 법으로서 과거제도 아니며 미래제도 아니다. 과거제가 아니라 함은 날이 때를 떠난 까닭이며, 미래제가 아니라 함은 멸하는 때를 떠난 까닭이다. 법신이 어리석지 않음은 곧 반야요, 반야가 집착 없음은 곧 해탈이요, 해탈이 적멸함은 곧 법신이다.

<부증불감경>은 적은 분량의 경전이지만 불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성이 진실한 것임을 망각하고 진아(眞我)에 대한 사견을 나타내어 아집과 법집(法執)을 야기하지 말기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부정하게 되어 진리를 올바르게 관할지 못하는 번뇌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경전이다. 신에 종속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서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표라면 우리 인간이 우주 법계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전대로 실천한다면 세계 인류의 정신적 등불이 되어 무명의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만들 것이다.

‘제행무상’ 바로 알면 절망 이길 수 있어 “웃고 사세요... 웃고 살면 여유 생겨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사람이 병에 걸리면 비로소 전염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전염도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병걸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온통 전염되고 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요. 그동안 우리는 100원이 있으면 더 붙여서 자랑부터 했다 그겁니다. 허풍이 고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분에 넘친 생활을 말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공동책임이 있는 공업(共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안이 불변의 상상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세

리는 희망을 지닐 수 있는 것이고 그 여신 속에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요. 우리의 일체는 마음에 달려있어 자꾸 희망을 가지면 나쁜 기운은 가 버리고 간절히 바라는 바는 성취됩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나는 요새 자주 웃어요. 또 자주 웃으면 다시 웃음이 나오거든. 전화 오면 노래도 불러요. 가사도 리듬도 모두 내 방식의 사람들에겐 포교하고 있는 승산스님이 안부전화하는데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놀라면서도 같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랜 지기들은 사실 내 웃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해요. 승산은 제2의 천성입니다. 인간 사는 곳에 속상한 일 많아요. 속상한 대로 생

는 가능성을 뚫었지요. 한마디로 마음의 평정을 이룬 큰 인물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도 넓고 깊어서... 열반드시기 전 3년동안을 내가 시봉했는데 법령 그대로 적음(寂音)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음식타령 한번도 하신바 없으셨으니까. 그러면서 도침술을 익히셔서 중생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먹고살기 힘들어 가난한 이들은 병원은 고사하고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 스님의 인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됐지요. 스님께서 선학원에 계실 때 스님의 덕망으로 신도들이 선학원 시주에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삼십살이 어려워 대종들이 변변히 공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도량도 정비하고 대종들과

Advertisement for 'Jewel' (玉) medicine. Title: '건강의 신비! 옥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Text: '대교에서 무덤까지 옥을 달고 산 한국인들...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출천옥 자연옥들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에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계가 걸립니다.' Contact: 777-0105 (백오옥)

Advertisement for 'Jinjin Daemyeonghui' (眞眞大慶會). Title: '無爲眞人(무위진인) 대도통 입문권 제회속신통(속경신)·청진대법회'. Text: '천인통·천인신 지안신 삼십팔 6천 개인통을 히어 제물신장을 부릴 수 있는 대대인의 도를 통하여 직접 성불할 수 있는 법과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법과 양가를 직접 천도시키는 법을 특도로 하리던 육신통기에도 입문하여 천인통, 타심통, 천리통, 신중통, 속명통, 무진통을 성취하여 1만 2천 도인·신선·선사경지에 득도하시고 이기되는 외도나 사도나 잠신수행을 물리칠 수 있는 도통법도를 도입해서 비전으로 직속하는 도장경의 주문과 10장 생경장 비법의 실기선법기공과 복식호출과, 집구나 좌충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주문법등을 지도하여 글든 운말 드는해에 입문하시던 도통은 물론 소원을 성취하여 조상신소, 이장, 시초, 목은출래등을 해도 아무 마진이 없으며 경신일 정오와 밤자시에 천문과 천복을 받고 수미신재서 천공신종과 8만 4천 회염신중.' Contact: 02-821-6622

Advertisement for 'Modern Information Marriage Research Institute'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Title: '부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Text: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어느날의 외로움...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끄러움...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낚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Contact: 02-634-4910

Advertisement for 'Honghwa Makul' (홍화마늘). Title: '홍화마늘'. Text: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Contact: 053-943-9371